



시퍼퍼스 이현이 지난 9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토스하고 있다. <KOVO 제공>

“믿음의 토스로 승리 이끌고 싶어요”

광주 시퍼퍼스 주전 세터 이현

슛과 빨간 신발, 백토스에서 엘리자벳의 백어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한 방까지. AI페퍼스 주전 세터 이현은 눈에 띄는 선수다.

“평소 운동할 땐 한 가지 신발만 신는데, 이번엔 빨간색에 꽂혔다”는 이현. 올해는 AI페퍼스의 상징색과 같은 빨간색 신발을 잔뜩 사 놨다는 그의 말에서는 팀과 한 몸인 것처럼 좋은 플레이를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올해로 프로 입단 3년차를 맞은 이현은 ‘믿음이 있는 팀’을 목표로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이현은 올 시즌 836회 세트틀 시도해 326회 성공시켰다. 세트 성공률은 39%다. 디그 점유율도 11.90%, 성공률 75.24%로 수비에서도 틈틈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여고 시절 레프트로 활약했던 경험도 돋보인다. 이따금씩 캄캄 스파이크를 꽂아넣거나 센스 있는 다이렉트킵을 성공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이끌기도 한다.

이현은 2019-2020 시즌에 GS칼텍스에 세터로 입단했으며, 주로 원포인트 서버로 교체 출전했다. 올 시즌에는 신생팀 특별 지명을 받아 AI페퍼스로 이적, 주전 자리를 꿰찼다.

올해 처음으로 GS칼텍스 반대쪽 코트에서 본 이현은 “기분이 되게 묘했다”고 한다. AI페퍼스는 아직 GS칼텍스를 상대로 1세

페퍼스 상징색에 꽂혀 빨간신발 신어 공격수 믿고 올리는 탄탄한 팀워크 쌓아 다양한 공격 옵션 활용하고 싶어요 피켓 들고 응원해주는 관중들에 감사

트도 때내지 못했다.

이현은 “안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승리에 집착하기보다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각오다.

이현은 사실 어깨가 무겁다. 당초 AI페퍼스는 구슬과 박사랑 2명의 세터를 더 확보했지만, 실상 이현은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해야 했다. 구슬은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교체 선수로 간간히 얼굴을 비추는 데 그쳤고, 박사랑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인대 파열로 발목 수술을 받는 바람에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다.

이현도 “주전 세터로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배우는 입장, 도전자의 입장이다. 한 경기 한 경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은 매일같이 엘리자벳과 이한비, 박경현 등 공격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리시브 상황에 맞춰 속공을 구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현은 “아직 토스가 흔들릴 때가 많다.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믿음이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 토스가 흔들리더라도 언니들을 믿고 올려줄 수 있는 탄탄한 팀워크를 쌓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감독님께 엘리자벳 공격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격수들을 끌고루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경기 때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고, 볼을 끌고루 나눠주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팬도 많이 생겼다. 원정 경기마다 응원 피켓을 든 팬이 관중석에 몰려들 정도다.

이현은 “응원 피켓을 들고 있는 팬 분들 많이 봤다. (웃음) 먼 곳까지 찾아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팀을 옮기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팬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즌 동안 다치지 않고 하는 게 우선이다”며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웃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원 취미반 ... 광주YMCA유소년야구단 ‘2021 서울컵’ 우승

전원 취미반으로 구성된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이 ‘2021 서울컵 유소년야구대회’ 우승팀에 등극했다.

최용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이 지난 29일 강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유소년야구 최강팀인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을 11-6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전국 8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친 후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연령 별로 새싹리그(U-9), 꿈나무리그(U-11), 유소년리그(U-13), 주니어리그(U-16) 등 총 6개 부문 우승컵을 놓고 경쟁이 펼쳐졌다.

유소년리그(U-13) 정통에 처음 진출한 광주YMCA는 예선 첫 경기부터 울해 스톤배 우승팀이자 ‘서울의 강호’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8-1로 꺾으며 돌풍을 예고했다.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에 4-13 대패를 기록했지만, 결승에서 다시 만나 승자가 됐다.

2승 1패로 조 2위로 결선에 오른 광주YMCA는 2회초 신유현(정광중1)의 우중간 2루타와 박하민(백운초6)의 우전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2회말 수비에서 1-2 역전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공격이 전개된 6회 승부를 뒤집었다. 4-5에서 선두타자로 나온 박하민의 좌월 솔로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임윤우(송의중1), 이진관(광주중1)의 적시타와 상대 실책 등을 묶어 8점을 뽑아내는 ‘빅이닝’을 장식하면서 11-6 승리를 기록했다.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결승전 승리를 이끈 이진관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의 주인공이 됐고, 극적인 동점 홈런을 쏘아 올린 박하민이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승을 지휘한 최용규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최용규 감독은 “우리가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일 주일에 한 번씩 야구하면서 즐겁게 하자 라는 분위기로 갖는데 즐겁게 야구하면서 성적까지 내준 선수들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선수들이 잘해서 이런 우승이다”며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승을 하게 돼 부담은 되지만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MVP 이진관은 “친구들이랑 함께 우승해서 기분이 좋고 결승에 삼진 잡고 수비 선수들이 병살을 잡아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삼성라이온즈 원대인 선수인데 제구도 되고 구속도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터커와 작별 공식화

2022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터커와의 작별을 공식화했다. KBO가 지난 30일 2022년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지난 10월 투수 삼동섭, 차명진, 변시원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던 KIA는 이번 보류 선수 명단에서 김영환, 유민상, 황윤호에 이어 터커도 제외했다.

2019년 해줄베이커의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지난해에는 32홈런·113타점·110득점을 기록, 구단 최초로 ‘30홈런-100타점-100득점’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장타 고민을 지운 그는 올 시즌에는 1루수 변신을 시도했지만 공·수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시즌 중반 다시 외야로 자리를 옮겼던 터커는 올 시즌 46타수 11안타, 타율 0.237을 기록했다. 또 9개의 홈런으로 59타점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예상대로 KIA는 터커를 보류 선수에서 제외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게 됐다.

한편 이번 시즌에 공시된 KBO의 보류선수수는 총 532명이다.

올 시즌 KBO리그에 등록됐던 선수수는 총 610명으로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 및 임의탈퇴 58명, 군보류 선수 43명과 FA 및 퓨처스리그 FA 선수 16명이 소속선수에서 제외됐다.

이어 각 구단이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서 44명이 추가로 제외되면서, 532명이 2022년도 보류 선수로 공시됐다.

구단별로는 두산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LG 57명, KIA와 한화가 56명이다. 또 삼성·키움 53명, NC 52명, SSG 51명, 롯데 49명, KT 47명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리오넬 메시(34·파리 생제르맹)가 남자 선수 부문 발롱도르를 수상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의 신’ 메시 7번째 발롱도르 수상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4·파리 생제르맹)가 개인 통산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메시는 지난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트로피를 받았다.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발롱도르는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메시는 각각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 투표에서 613점을 받아 580점을 받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뮌헨)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탈리아와 첼시(잉글랜드) 미드필더 조르지뉴가 3위, 프랑스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스트라이커 카림 벤제마가 4위에 자리했다.

1956년 처음 시작돼 올해 65회째를 맞은 발롱도르에서 메시는 개인 통산 7차례(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5년·2019년·2021) 수상에 성공해 역대 최다 수상자 타이틀을 지켰다.

이 상을 5회(2008년·2013년·2014년·2016년·2017년) 수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를 벌렸다. 시상식에 불참한 호날두는 올해 투표에서 6위로 밀렸다.

2021년 뮌헨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53골을 넣으며 더 정교해진 ‘특정 기계’의 면모를 뽐낸 레반도프스키는 새로 제정된 올해의 스트라이커상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우승에 한 몫한 잔루이지 돈나룸마(PSG)가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2부리그 강등 광주FC, 팬들에 사과문

“4일 인천과 최종전 승리위해 최선”

강등이 확정된 광주FC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입을 열었다.

광주는 지난 30일 구단 SNS를 통해 “광주FC 팬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광주는 “K리그1 2021 37라운드 성남FC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하며 잔류의 희망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시즌 내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던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광주는 앞선 성남 원정에서 0-1로 지면서 승점 36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 11위 강원FC는 서울전 0-0 무승부로 승점 40이 됐다. 오는 4일 최종전을 앞두고 있지만 두 팀의 승점이 4점 차로 벌어지면서 광주FC의 강등이 결정됐다.

광주는 지난 11월 7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장단 후 포항전 첫 승과 함께 잔류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성남 원정에서 김영광의 선방 퍼레이드에 땅을 치면서 12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서울이 광주에 비수가 됐다.

광주는 11월 3일 서울과의 35라운드 홈경기에서 3-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적인 3-4 역전패를 당하며 운명이 바뀌었다. 광주는 37라운드에서는 악몽의 패배를 안겨준 서울을 응원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강원 2패, 광주 최종전 승리’라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경우의 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강원을 상대하는 서울의 승리를 빌어야 했다.

하지만 광주FC의 바람과 달리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고 광주FC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시즌 전 ‘강등 후보’로 꼽혔던 광주는 결국 한계를 경험하고 2년 만에 K리그2로 돌아가게 됐다.

잔류 경쟁은 끝났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서 “2021시즌 마지막 경기인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2022년에 대한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 도약하는 광주FC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이번 사과문을 통해서 “2021시즌 마지막 경기인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2022년에 대한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 도약하는 광주FC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